

## 대 회 순 서

###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

◇ 사회 : 신상직(대한약사회 약국이사)

- 일시 : 2011. 1. 23(일) 오후 1:30
- 장소 : 대한약사회 대강당(4층)

- 식전행사
- 개회선언(13:30)
- 국민의례
- 대한약사회 주요 정책현안 설명 : 엄태훈(대한약사회 기획실장)
- 회장인사 : 김 구(대한약사회장)
- 구호제창 : 시도지부장
- 메시지 낭독
  - 대통령께 드리는 글 : 구본호(대한약사회 비대위 대국민사업팀장)
  - 국민께 드리는 글 : 신성숙(대한약사회 부회장)
- 결의문 채택 : 홍종오(대전지부 지부장), 윤성미(경남지부 부지부장)
- 우리의 각오 :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 폐 회

社團 法 人 대 한 약 사 회

## 대통령께 드리는 글

록 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1. 23.

전국 6만 약사 일동은 2007년 11월 25일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 6만 약사 일동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약국의 판매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그 당시 말씀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 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고 말씀하셔서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붙인 적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단순히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먹는 것으로 대통령님께 말을 전했습니까?

의약품에 대한 기본상식도 갖추지 않은 슈퍼 근무자에게 의약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약국 접근성이 높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의 약국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국 스스로의 노력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약국의 판매라는 소모적 논쟁이 즉각 중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약사가 약사로서 자랑스럽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 국민께 드리는 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전문직능인의 정도를 걸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물질입니다. 단순히 편의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1. 1. 23.

그러나 일부에서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6만 약사 일동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불편만을 이유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의약품을 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사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 약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슈퍼에서 이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리 약사들은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여러분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DUR로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가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약품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의 잘못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는 결국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 결 의 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6만약사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사용에 있어 무분별한 시장경제 논리와 책임 없는 자유경쟁 도입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유통구조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의약품 구입 및 사용에 있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나. 국민 불편을 빙자한 의약품의 약국외판매 허용에 관한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에 앞서 대대적인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건강을 위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유통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1. 1. 23.

전국 6만 약사 일동

#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2011년 1월

社團 大韓藥師會  
法人

# 의약품 약국의 판매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 □ 의약품 사용의 원칙

-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듯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효능·효과와 더불어 독성(毒性)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 생산과 관리, 사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일정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 접근성(Access), 안전성(Safety), 비용성(Cost)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의약품 사용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Quality) 관리 기전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는 한 번의 복용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긴 시간 인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리콜(recall)이 가능하지만 이미 복용해버린 의약품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일반 공산품처럼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1.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약국 접근성이 보장되면 슈퍼판매가 갖는 접근성 증가보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이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 □ 약국당인구수 3천명이하 OECD 회원국의 약국의 판매 여부

	국 가 명	인구(2009)	지역약국수	약국당인구수	약국의 판매
1	그리스	11,287,040	11,000	1,026	×
2	벨기에	10,779,740	5,222	2,064	×
3	스페인	46,745,807	21,165	2,209	×
4	한 국	49,770,000	21,000	2,370	×
5	일 본	127,714,200	53,304	2,396	△1)
6	프랑스	64,700,000	22,462	2,880	×
7	터 키	71,890,000	24,119	2,981	×

## □ 약국당인구수 3천명이하 EU 회원국의 약국의 판매 여부

	국 가 명	인구(2008)	지역약국수	약국당인구수	약국의 판매
1	그리스	11,237,068	9,670	1,162	×
2	사이프러스	863,621	436	1,980	×
3	몰 타	412,001	224	1,839	×
4	불가리아	7,623,395	4,518	1,687	○
5	벨기에	10,695,000	5,167	2,069	×
6	스페인	46,501,000	20,941	2,220	×
7	라트비아	2,266,094	858	2,641	○
8	프랑스	62,046,000	23,162	2,678	×

자료 : Donald Macarthur, European Pharmaceutical Distribution: Key Players,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ies, SCRIP Reports, p61 (2007)  
Gross domestic product 2009, World Bank, 1 July (2010)

1)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통과한 등록판매자에게 일부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여 전자자격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7개 국가중 13개국(48.1%)이 의약품 약국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2개 국가는 슈퍼판매를 허용하되 약사에 의해서 관리 또는 판매토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인 슈퍼판매를 허용한 국가는 12개국(44.4%)에 불과합니다.**

□ EU(유럽연합) 27개국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여부

약국외 판매 금지	판매 허용, 약사 관리	약국외 판매 허용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sup>2)</sup> ,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 스페인	이탈리아 <sup>3)</sup> 포르투갈 <sup>4)</sup>	체코, 불가리아,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13개국(48.1%)	2개국(7.4%)	12개국(44.4%)

자료 : PGEU, Non-prescription medicines sold only in pharmacies, 2010

- OTC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이 넘고 국토면적도 우리의 약 100배에 달하여, 의약품 구입에 애로가 있어 안전성에 우선하여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학연구원(IOM)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5만 명의 미국인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은 의약품으로 인한 일체의 위해(危害) 요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갖추지 않은 슈퍼 근무자에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약사의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올바른 정책입니다.

-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경우 알콜 섭취후 복용시 간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어 간부전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아스피린의 경우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의약품 유해반응(2007년~2010년 상반기) 74,037건 분석결과 아스피린<sup>5)</sup> 1,753건, 아세트아미노펜<sup>6)</sup> 1,641건으로 전체 의약품 성분중 5위와 6위 차지(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 '약물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 2010년)

※ 2011. 1. 13 미국 FDA는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간독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에 따라 복합제 의약품의 경우 1정당 750mg까지 허용하던 함량을 325mg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최고수준의 블랙박스 경고문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조치

- 특히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고위험군인 노인과 영유아층의 잘못된 의약품 복용을 초래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과 처방약간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의약품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2)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자유판매약이 있으나 그 범위가 차(tea), 천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제, 영양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을 지님

3) 슈퍼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나 약사가 취급해야 함.

4) 슈퍼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나 약사 또는 약사 감독하의 pharmacy technician이 취급해야 함.

5)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음

6) 알콜 섭취후 복용시 간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어 간부전에 의한 사망 우려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럽제 감기약 투여를 금지**한바 있으며, 2009년 3월 혈소판 감소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보고된 **게보린·사리돈·암씨롱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에 대해 15세미만은 투여를 금지**하고 성인의 경우도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켰습니다.

○ 2010년 7월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을 초·중학생 중심으로 학교 등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사회문제화 된바 있으며, 이러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약국에서는 해열진통제의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은 2012년 3월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판매중지될 예정임.

○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약국과 슈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약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함께 진열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슈퍼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PPA성분 감기약(콘택600 등)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 완료된 6개월 이후에도 상당수 슈퍼에서 이를 불법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되었으며, 2007년 **발암성이 확인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약외품)도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슈퍼에서는 1년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판매된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2008년 10월 멜라민 수지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위해(危害) 물질에 대**

**한 즉각적인 회수와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국내 유해식품 수거율은 2005~2007년 3년간 평균 14%에 불과).** 2009년 4월 석면 탈크 사용 베이비파우더는 시중 판매업소에서 제때 회수되지 못했으나,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국 약국에서 즉시 투약이 금지되고 신속히 회수되었습니다.**

### 3. 슈퍼의 판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 약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은 저마진에 팔리고 있으나, 슈퍼의 경우 주력품목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현재 약국과 슈퍼에서 동시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슈퍼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별첨자료 1>**

### 4. 약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약국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야간당번약국 및 연중무휴약국(전국 3,300여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자체 규정에 당번약국 운영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추석 이후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사례는 거의 접수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당번약국 홈페이지(pharm114.or.kr) 운영과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4(전화번호 안내),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모바일기기(스마트폰)의 ‘열린약국 찾기’ 등과 연계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휴일·심야시간대 당번약국 개폐문 현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당번약국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 ☞ 당번약국 실시간 안내 시스템

- 약국 컴퓨터를 켜면 당번약국 홈페이지 서버로 약국운영에 대한 신호가 30분 단위로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약국 개·폐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운영 확인된 약국은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서 초록색 기호로 표시되므로 국민들이 현재 운영중인 인근 약국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검색된 당번약국의 운영시간, 전화번호, 지도안내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번약국 운영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 5. 동네약국 폐업으로 의약품 접근성이 약화됩니다.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 근처 문전약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약국의 약 25%가 1일 조제건수 30건도 채우지 못하는 등 **조제건수 불균형으로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약사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환자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사랑방’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의약품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져 폐업에 이르게 되고, 특히 서민층·저소득층의 질병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 역할을 수행해 왔던 동네약국 약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24시간 편의점 등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자인 **동네약국의 폐**

업을 초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약국 접근성의 하락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약물 오남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 6. 국민건강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현행 법에 의약외품의 관리체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슈퍼에서의 제품 회수, 폐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위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도 불분명한 전국 11만개 슈퍼에서 부작용 발생 의약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체불명의 가짜약과 건강기능식품 유통도 우려되는 등 국민건강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2009년 신종플루 사건과 같이 국가적인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2만여 약국이 단 3일 만에 항바이러스제를 모두 구비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약국의 공익성과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 확보 노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별첨1>

**약국 및 슈퍼의 공동 판매품목 가격조사표**

- 조사일시 : 2010. 6. 9
- 조사방법 : 일반인을 공개 모집하여 임의배정을 통해 조사 진행
- 조사대상 : 약국

지역	구매처	규모	조 사 품 목(구매단위 : 1병)			
			컨디션과워(CJ)	모닝케어(동아제약)	여명808(그래미)	가그린380ml(동아제약)
경기 부천	태○약국	소	3,000	3,000	3,500	3,000
	팰○○약국	소	2,500	3,000	3,500	2,800
	미○○약국	중	2,500	3,000	3,000	4,000
	중○약국	중	3,000	3,000	3,000	3,500
	인약국	대	2,500	3,000	3,500	2,800
	부○약국	대	3,000	3,000	3,500	3,500
서울 서초	장○○○○국	소	3500	3500	4000	3500
	백○○약국	대	3000	3000	3500	-
	수○약국	중	3500	3500	3500	3500
	노○약국	소	3000	3000	4000	3000
	래○○약국	중	3500	3000	4000	3000
	사○○약국	중	3500	3500	4000	3500
서울 노원구	보○약국	소	2500	2800	3000	3000
	한○약국	소	3000	3000	-	3500
	우○약국	중	2500	3000	3000	2800
	상○○○약국	중	3000	3500	3500	3500
	백약국	대	3000	3000	3500	4000
	수약국	대	3000	3000	4000	2900
	약국 평균가격			2,972	3,100	3,529
슈퍼 평균가격(후첨)			3,722	3,683	4,572	3,444
약국 대비 슈퍼 판매가격 비율			125.2%	118.8%	129.6%	104.9%

※ 슈퍼 가격조사 결과

지역	구매처	규모	조 사 품 목(구매단위 : 1병)			
			컨디션과워(CJ)	모닝케어(동아제약)	여명808(그래미)	가그린380ml(동아제약)
경기 부천	패밀리마트 역○점		4000	4000	5000	3500
	대○○○마트		3000	3000	3800	-
	엠○○○○○마트		3500	3500	4000	-
	세븐일레븐 삼○점		4000	4000	5000	3500
	송○○○○○마트		2500	2500	4000	-
	패밀리마트 부○○○○○점		4000	4000	5000	3500
서울 서초	패밀리마트 반○○○점		4000	4000	5000	3500
	지○식품		4000	4000	4000	-
	바이더웨이 내○○○점		4000	4000	5000	3500
	마○○○		3000	2800	3500	-
	예○○○		4000	4000	5000	-
	GS25 서○○○○점		4000	4000	5000	3500
서울 노원	세븐일레븐 북○○○역	45평	4000	4000	5000	3000
	미○○탑	20평	4000	4000	5000	3500
	패○○○트	30평	4000	4000	5000	3500
	제○슈퍼	40평	3500	3500	4500	-
	효○○○	35평	4000	3500	4500	-
	봉○○○슈퍼	40평	3500	3500	4000	-
	평균가격			3,722	3,683	4,572

※ 조사과정에서 용량이 상이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 결의대회 구호

6만 약사 단결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국민보건 포기정책 약사들은 분노한다!

동네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약 심 이 흔들리면 민 심 이 무너진다!

슈퍼판매 검은배후 거대자본 치졸하다!

편하다고 약물남용 국민건강 다망친다!

국민불편 해소하여 약사직능 지켜내자!

하 나 로 뭉친힘이 외부도전 물리친다!